

한국기독교윤리학, 그 처음 이야기*

오지석(백석문화대 강사)

I. 문제제기: 서학의 윤리사상과 기독교 윤리학은 전혀 다른 것인가?

II. 서학윤리사상과 조선 지식인의 조우

1. 윤리학, 가인가?
2. 서학윤리사상에 대한 이해
3. 조선 지식인, 『천주실의』를 통해 서학윤리와 만나다.

III. 인간중심의 윤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윤리로

IV. 나오면서

* 이 논문은 2007년 숭실대학교 철학과에서 발행한 『사색』 23집에 「조선후기 지식인과 서학윤리사상」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아이디어와 일부 내용을 차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 **ABSTRACT** •

In this paper, I researched the starting point on “Korean Christian Ethics”.

The ethical encounter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occurred during the 17th, 18th century in Korea. For 18th century Korean Christians accepted Jesuit ministry works for the Western-Christian ethics.

I focused on Jesuit’s ethical thought in the Far East. 18th century Korean Christians accepted Jesuit ministry works for the Western-Christian ethics. In 18th Korean Christian Society, Matteo Ricci’s ethical thought and Pantoja’s *Seven Victories* (七克) has a great influence on a religious life.

The main focus of this thesis is on moral and ethics in latter Josun. For despite a great difference between Seo-Hahk(Jesuit ministry works) and Neo-Confucian Ethics in latter Josun, I find the starting point on “Korean Christian Ethics”.

Keywords: Korean Christian Ethics, Jesuit, Thomism, Aristotle, Seo-Hahk, Matteo Ricci, Pantoja, Seonbi(士), De Deo Verax Disputatio

I. 문제제기: 서학의 윤리사상과 기독교 윤리학은 전혀 다른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서적 전통과 기독교 전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동시에 동아시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유교적 전통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고 지금도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 유교와 기독교가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혼재하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의 토착화의 문제로, 종교 간의 대화의 문제로, 외세 의존적 의식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할 때 자발적으로 수용하는가 아니면 일방적 수용 또는 강요받은 것이냐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전교는 유교 윤리가 지배하고 있던 한국 사회에 새로운 도덕 관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삼강오륜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중국을 만주족이 지배한 이후 스스로 동아시아의 문화적 구심점이라고 자처하던 조선사회에서 유교적 예절 법도도 모르는 서양인들이 조선사회를 자신들의 예절로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되어 많은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도덕이라는 것은 보수적 성격을 띠기 쉽고 이 보수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전환기에는 으레 도덕적 갈등이 생긴다.¹⁾ 이런 갈등은 곧 새로

1) 김태길, 「한국의 전통적 도덕관념과 새 시대 조류의 조화 문제」, 『윤리문제의 이론과 사회 현실』,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72쪽 “도덕관념이란 대체로 보수 세력과 짝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대해 김태길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배계층이 기성의 도덕관념을 젊은 세대에 전수하면서 새로운 도덕사상이 등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고, 둘째, 개혁을 회구하는 새로운 세력은 전통적 도덕이 자기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배척하는 태도로 나오기는 하나, 자기들이 배척하는 묵은

운 도덕에 대한 갈망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비록 ‘새로운 도덕’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이 전통적 도덕과 전혀 관계없이 세워질 수는 없다. 우리의 가치관이 과거와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다. 묵은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시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²⁾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기독교윤리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 다시 말해 한국기독교윤리학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인 가라고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맹용길 박사의 『한국 기독교 윤리사상』와 강원돈 교수의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어제와 오늘」을 들 수 있다. 맹용길 선생의 연구는 김교신, 박형룡, 한경직 등등 한국교회초기 지도자들이 일제강점기동안 기독교윤리에 대해 단편적으로 언급한 자료를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강원돈 교수는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어제와 오늘」라는 연구를 통해 한국 기독교윤리학에 대한 연구사와 한국기독교윤리학의 형성과정, 1990년대 초반의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지형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선행연구들은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남는다.

프로테스탄트의 전래 이전에 한국은 기독교 윤리학(또는 서양 윤리학)을 전혀 접하지 못하였던 것인가? 아니면 서학의 전래에 따라 함께 들어온 서학서들 속의 윤리사상은 기독교 윤리학과 전혀 무관한 것인가? 라고 묻는 것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조선 후기 서학이 전래되었을 때 함께 전해진 서양(기독교)윤리학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한국

도덕을 대신할 새로운 도덕을 제시하기에는 많은 곤란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한번 깊이 자리 잡은 관념은 일반적으로 지워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이성적 판단으로는 낡은 도덕관념을 배척할지라도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여전히 옛 관념에 얽매이는 것이 보통이다.”

2) 위의 글, 74쪽

기독교윤리학의 기원에 대한 궁금함을 잠시 풀어 보려고 한다.

II. 서학윤리사상과 조선지식인의 조우

1. 윤리학, 액제가厄第加인가? 수제치평修齊治平의 학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말하자면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윤리적인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간다. 어찌 보면 산다는 것이 윤리적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윤리적인 문제들과 부단히 씨름해 왔다. 어떤 문제들은 세대를 이어오면서 계속된다. 오래 전부터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선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늘 묻곤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Ethics(영어), Ethik(독일어), Ethique(불어), Ethica(라틴어) 등 서양의 언어로 윤리 또는 윤리학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면 서양의 윤리학을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 까?

19세기 일본인들은 번역을 통해 중국과 한국으로 대변되는 동아시아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서양 학문에 대한 각종 번역어를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양철학 용어인 ‘ethics’와 ‘moral’을 각각 ‘윤리(학)倫理(學)’과 ‘도덕道德’이라고 번역하였다.

번역어 윤리倫理는 사전적으로 ‘윤倫’은 무리나 또래, 질서와 같은 뜻을 지니며, ‘리理’는 이치나 이법理法, 도리라는 뜻을 가진다. 즉, 윤리란 사람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도라는 뜻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것이 동아시아인들에게 소개된 서양의 윤리학에 대한 첫 번째 번역어일까? 하지만 일본인들이 번역하기 이전에 16세기말부터 18세기 예수회가 해산되기 전까지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기독교의 전교와 서양의 문물, 학문사상과 과학 기술을 소개하고 전개하였다. 특히 17세기 초 마테오 리치가 북경에 입성한 후 많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활동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기독교의 복음만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서양의 학문과 과학 또한 소개하고 전개하였다.

그들 가운데 서양에서 온 공자라고 일컬어지는 알레니 Aleni, Julio (1582~1649; 艾儒略, 字-思及, 西來孔子)는 『서학범西學凡』(杭州 1623)에서 서양의 학제를 설명하면서 윤리학을 ‘액제가 厄第加’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ethica’를 ‘厄第加’라고 한자로 번역하면서 그 뜻을 수제치평 修齊治平의 학문이라고 하였으며, 액제가에 대해 ‘의리의 학을 고찰하고 다시 철학(斐錄)에서 뜻하는 사물의 정세를 다룬다’고 소개한다⁴⁾. 이제 알레니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수제치평의 학문을 윤리학이라고 한다. 그 뜻을 번역하면 의리의 학을 고찰하고 다시 철학에서 뜻하는 사물의 정세를 다룬다는 뜻이다. 또 덧붙이는 하나의 학문으로 말하면 대개 세 가지 것을 포괄한다.

하나는, 여러 가지 일의 원리를 살피고 모든 덕의 근본을 고찰하며 만행의 정세를 보아 마땅히 선을 좇고 악을 피하는 것이 수신하는 이유이다.

둘은,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길, 즉 제가齊家를 논한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居室), 대중 가운데 처신, 직업, 자녀양육을 논하고 마땅히 취할 바와 경계

3) 이경직, 「기독교 철학에서 본 윤리학의 특성과 전망」, 『기독교사회윤리』 제8집, 2004, 245쪽

4) 오지석, 「조선 후기 지식인과 서학윤리사상」, 『사색』 23집, 송실대 철학과, 2007, 51~52쪽. G. Aleni, 김귀성 옮김, 『17세기 조선에 소개된 서구교육 - 『서학범』 『직방외기』, 원미사, 2001. 31쪽.

할 바를 알게 하여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제가에 관한 것이다.

셋은, 많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품격과 절도를 구별하고, 어진 사람을 선발하여 백성의 삶을 책임지게 하는데 관리의 등급을 살펴 임명하고 정사를 평가하여 바른 사람은 드러내 등용시키고 바르지 못한 자는 제거하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이미 수양이 되고, 가정이 잘 가지런해지며, 나라가 잘 다스려 평안해지면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거의 갖추어진 것이다.⁵⁾

윤리학에 대한 알레니의 이런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학에 대한 분류⁶⁾를 『대학』의 팔조목⁷⁾에 기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회 전교

5) 알레니, 앞의 책, 31쪽.

李之藻, 『천학초합』, 『서학법』, “修齊治平之學” 40~41.

修齊治平之學 名曰厄第加者譯言察義理之學, 復取斐錄之所論物性情性理, 又可一番學問是第五家大約括干三事, 一察衆事之義理考諸德之根本觀萬行之情形, 使知所當從之善當避之惡所以修身也. 一論治家之道居室, 處衆資業慈育, 使知其所當取所當戒以齊家也. 一區別衆政之品節擇賢長民銓敘流品考覈政事, 而使正者賢庸邪者進棄, 所以治天下也. 而身既修家既齊國其治平, 則人道庶幾備矣. 故西士學者德業必求其精綱常倫理之詳, 日用細微之節無一不 求得其處置之矣. 總從知己本性始以至知萬有之萬有, 卽知萬有之至尊. 然後復其初反其本也. 既明於此推廣至尊之仁以及於物使各充其職, 而盡其分數則學始大全矣.

6)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학(th or tik),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학(praktik), 제작의 원리를 다루는 제작학(poietik)으로 3분하였다. (『형이상학』VI,1025b) …실천학은 그 탐구 대상이 국가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개인인가에 따라 정치학·가정학·윤리학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요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경문사, 1988, 219~220쪽.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학문 분류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도 학문을 사변적(speculative) 철학과 실천적(practica) 철학으로 나누었다. 사변적 학문 또는 철학에는 자연학, 수학, 형이상학(신학)이 있고, 실천적 학문에는 윤리학, 경제학(가정학), 정치학이 있다. 토마스는 『윤리학 주해』에서 실천적 학문의 고유함이 “인간적 행위들을 행위들 상호간의 질서와 목적과의 관계되는 측면에서 다루는 데” 있다고 밝힌 후에 이 학문을 세분하고 있다. “윤리철학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그 첫 부분은 한 인간의 목적으로 정향된 행위들을 고찰하며, ”모나스티카(monastica, 개별윤리학)라고 불린다. 둘째 부분은 가정 공동체의 행위를 고찰하며, “경제학”(economica, 가정윤리학)이라고 불린다.

사의 윤리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토미즘의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해석 그리고 스콜라 윤리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 서학 윤리사상에 대한 이해

1) 예수회 전교사들의 지적 배경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예수회 전교사들이 16세기에 받은 교과과정을 보면 그들의 동아시아에서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휴머니즘의 새로운 사상적 전개는 중세의 전통을 단절 없이 계승하고 있던 대학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대학의 철학은 당초 휴머니즘을 비판하고 있었지만, 15세기 말 이후부터는 휴머니즘과 연결을 가졌으며, 16세기 말경에는 휴머니즘과 융합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세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16세기에도 여전히 대학의 학예 하부와 철학은 신학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에서 신학은 수도회별로 각각의 공식적 사상 체계에 따라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즉 도미니코 수도회는 토마스주의,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스코투스주의 및 오캄주의, 아우구스티누스 은수사회는 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는 식이었다.

예수회 전교사들은 이베리아 중심의 토마스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들을 제2토미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2토미즘을 이끈 학자들로 는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Francisco de Vitoria(1483/1493~1546), 페드

셋째 부분은 국가 공동체의 행위를 고찰하며 “정치학”(politica)이라고 불린다.” 박승찬,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체계에 대한 중세의 비판적 수용-토마스 아퀴나스의 주해서를 중심으로」, 『중세철학』 제9호, 한국중세철학회, 2003, 150~154쪽.

7) 『대학』 경문經文에 있는 명명덕明明德·친민親民·지어지선止於至善의 셋을 삼강령이라 하고, 평천하平天下·치국治國·제가齊家·수신修身·정심正心·성의誠意·치지致知·격물格物의 여덟 조목을 팔조목이라 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http://100.naver.com/100.nhn?docid=728643>

로 다 폰세카Pedro da Fonseca(1528~1599), 루이스 데 몰리나Luis de Molina(1535~1600), 가브리엘 바스케스Gabriel Vazquez(1549~1604), 프란시스코 수아레스Francisco Suarez등이 있었다.⁸⁾

1548년 이탈리아 메시나Messina에서 세워진 예수회 대략의 교과과정에서부터 예수회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전통을 받아들였다. 새로 설립된 예수회 대학에서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들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메시나 대학을 설립하는 직접 참여한 나달Jeronimo Nadal은 1548년 작성한 <일반대학교육과정 De universitae studii genefalls>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교과과정의 핵심으로 받아들인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메시나 대학의 인문학을 위해서 나달은 호레스, 키케로, 케사르, 에라스무스 등의 라틴어 저술과 이슥과 아리스토파네스 등의 헬라이어 고전을 교과과정으로 채택했다. 예수회의 사제서품을 위한 교과과정은 이나시오 로올라의 『예수회 회헌 Constitutions』에 기록되어 있다. 모든 예수회 사제들은 먼저 2년간 라틴어와 헬라이어 수업을 이수하고 추가로 2년간 인문학적 수련을 더 받아야만 사제가 되기위한 철학과 신학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철학을 위해서는 3년의 교과과정, 그리고 신학을 위해서는 모두 4년의 추가 교육과정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사제로 서품되기 전 모든 예수회 사제들은 12년의 엄격한 교과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 마테오 리치와 같은 초기 예수회 사제들이 이수해야만 했던 철학과 신학의 7년과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체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달의 1551년 문서 《예수회 대학의 교과과정 De Studiis Societatis Iseu》에는 철학과정을 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논리학, 자연학, 영혼론 등을 이수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3년 과정 첫해에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achea』을 이수하고 그 뒤 3년간 『자연학

www.kci.go.kr

8) 줄리우스 리젠후버, 이용주 옮김, 『중세사상사』, 열린책들, 2007, 323~328쪽 참고.

Pyhsica auscultatio』(8권), 『천계론 De Coelo』, 『기상론 Meteorologica』, 『발생, 소멸론 De Generaione et Corruptione』, 『영혼에 대하여 De Anima』, 『소자연 과학서적 Parva naturalia』, 『형이상학 Metapysica』을 교재로 수업을 했다. 초기 예수회 대학의 이런 지적 분위기는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중국에 정착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 유교의 고전을 저항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⁹⁾

2) 한역서학서에 나타난 서학윤리사상

예수회 선교사들은 그들이 배운 학문을 기초로 하여 중국에서 서양의 학문과 사상을 소개하는 일환으로 한역漢譯작업하는 데 힘을 썼다. 서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을 알려진 바노니 Alphonsus Vagnoni(1566~1640; 高一志 또는 王豐肅)수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서학치평西學治平』·『민치서학民治西學』·『수신서학修身西學』·『서학제가西學齊家』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동아시아세계에 소개하였다.

또한 이지조李之藻가 편찬한 『천학초함天學初函』 「이편理篇」에는 10권의 책이 있는 데 그 가운데 마테오 리치의 저작인 『교우론』, 『25언』, 『천주실의』 3~8권과 뻘또하가 지은 『칠극』, 그리고 삼비아시가 쓴 『영언여작』은 단순히 중세 기독교 윤리사상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스토아 윤리사상,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이르는 서양의 고대와 중세 윤리 사상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가톨릭 선교사들은 단순히 서양의 사상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

9) 김상근,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에 나타난 16세기 후반 예수회 대학의 교과과정과 예수회 토미즘의 영향」, 『敎會史學』 제4권 제1호, 한국기독교교회사학회, 2004, 109~112쪽.

10) 오지석, 앞의 글, 66쪽.

들이 동아시아에 온 목적을 전하기 위해 교리서들도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것들은 조선에도 전해져 조선 후기 가톨릭을 받아들인 지식인들과 일반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윤리의 기준과 규범이 되었다.

조선에 전래된 교리서들 가운데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 전해진다. 그 가운데 십계명과 산상수훈등의 내용을 당시 유럽의 안세니즘과 유교문화가 잘 조화된 엠마누엘 디아즈Emmanuel Diaz(1574 ~ 1659, 陽瑪諾)의 『천주십계직전天主十戒直詮』(1642)¹¹⁾, 프랑스와 브랑카티Francois Brancati(1607 ~ 1671, 潘國光)의 『십계권론성적十戒勸諭聖蹟』, 장 두아르테Jean Duarte(1671 ~ c.1751, 聶若望)의 『십계약설十戒略說』 등과 같은 것이 있고, 고해성사와 관련하여 양심을 성찰하고 윤리적인 덕을 키우는 데 저술 목적이 있는 알레니의 『척죄정규』가 있다. 그런데 이 책은 함유론적 방식이 아니라 교회의 윤리서에 근거하여 윤리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이 시기의 기독교 윤리는 근대적 가치를 많이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혹자는 죄론罪論(peccatology)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죄에 대한 이해는 조선후기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¹²⁾

3. 조선 지식인, 『천주실의』를 통해 서학윤리와 만나다.

성리학에서는 심心과 신身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존재에서 ‘심心’을 ‘신명神明’과 동일시하고, 사후에 心을 ‘魂’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성리학의 ‘심’ 개념에 대한 인식에 서학의 ‘靈魂’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11) 디아즈의 『천주십계직전』은 1789년 북경에서 구베아 주교의 감수로 재간되었고, 이때를 전후로 조선교회에도 전해졌다. 이 책이 『십계진전十戒眞詮』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신도들 사이에 필사본으로 나돌았다.

12) 오지석, 앞의 글, 75~77쪽 참고.

것은 인간이해에 대한 새로운 충격이었다.

이 충격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천주실의』는 17·18세기의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을 지녔던 서학서이다. 이는 토미즘의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책은 모두 여덟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제목들은 인간의 본성 및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 믿어야 할 사항을 잘 보여 주고 있다.¹³⁾

『천주실의』에서 개진되고 있는 논증들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그 하나는 무신론적 사상이 지배하는 유교적 세계관, 특히 신유가(송명 이학)의 순수한 존재론적 도덕형이상학에 맞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설득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리치의 하나님(天主) 증명에 대한 소개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주실의』의 3편에서 8편에 걸쳐서 그가 유교 윤리에서 강조되는 ‘인간의 자기완성’ 또는 ‘도덕적 자기 계발’을 의식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에 바탕을 둔 인간 수양론, 또는 기독교 윤리 이상론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유교를 넘어서는 기독교의 윤리 이상론의 개진은 정말 독창적인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신과 물질 또는 영혼과 육신의 과도한 대립과 이분법을 전제하고 전개되고 있지만 기독교 윤리의 진지성과 참뜻을 신유학자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동서 사상의 회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¹⁴⁾

이러한 서학윤리사상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미즘의 인간 이해와 윤리학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에 따르면,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해주는 기본적인 것은 아니마(魂 anima)¹⁵⁾이다. 생물의 발전 단계에 따라 식물,

13) 도날드 베이커, 김세운 역, 『조선 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대립』, 일조각, 1997, 117쪽.

14) 송영배, 『동서철학의 교섭과 동서 사유 방식의 차이』, 논형, 2004, 27~28쪽 참고.

동물과 인간의 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다. 식물은 단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 생혼(生魂)만을, 그리고 동물들은 생혼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물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인 각혼(覺魂)을 갖고 있다. 인간은 생장하고(生魂), 지각하며(覺魂), 또한 지각된 인식들을 추론할 수 있는 이성능력인 영혼(靈魂) 모두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구별해주는 것은 인간가지고 있는 이성적 추리 능력, 즉 시비와 서약을 변별할 수 있는 이성능력(靈才 또는 靈心)에 있다.

인간은 물질적 육체와 정신적 영혼이 결합된 특수한 존재이다. 인간에게는 생혼과 각혼 또한 갖고 있다. 이 둘은 그것을 지닌 유형한 물질적 존재가 소멸하면 그와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영혼은 이런 유형한 물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 속에 우리는 우주의 삼라만상들을 관념화하여 수용할 수가 있다.

인간의 육체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五司)으로 사물을 지각하지만, 무형한 정신은 감각적 인식을 총하여 얻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저장하는 기억(司記舍), 이들을 변별하고 추리하여 보편적이고 확실한 진리를 확보해주는 이성(司明悟), 그리고 이런 이성적 판단에 의거하여 그것을 실제 행위로 실천하려는 의지(意 또는 司愛慾)의 세 가지 기능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동물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높은 이지적 욕구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다. 이 욕구를 토마스느 의지(意)라고 불렀다. 도덕적인 행위란 바로 이런

15) 리치는 서구 그리스 문화와 기독교 문화권에서 형성된 영혼에 관한 이해를 중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유교문화권에서 ‘anima’의 개념화를 시도한 사람이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최근의 연구로는 황종렬의 「마테오 리치의 실존적 영혼관」, 『한국사회와 천주교』, 2007을 들 수 있다.

의지에 따른 행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리치는 인간의 마음이 정상적일 때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 도덕적인 선을 택하도록 하지만, 마음이 사욕에 가리어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와 반대로 악행에 빠진다. 여기에서 선생과 악행 중 그 어느 하나를 택하게 하는 의지의 선택 또는 의지의 자유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목적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토마스는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선, 인간 자체를 완전하게 완성해내는 일이라 보았다. 따라서 우리의 선은 우리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미즘을 바탕으로 『천주실의』에서는 인간론과 윤리학을 함께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다. 먼저 영혼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성의 능력 즉 실천적 지혜에 대한 리치의 이해를 전개하고 있다. 그 이후에 ‘자유 의지’와 ‘의지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실 의지의 문제는 이성의 사유 문제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이나 『분석론 후서』에 등장하지 않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의지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3권의 1~8장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쟁점이었다. 리치는 인간론을 다루면서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론’까지 통합시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사물들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나 윤리적인 실천 의지는 모두 인간 영혼의 고유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포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리치의 생각에 따르면, 감각 경험으로부터 유래한 개별자에 대해 보편적이고 타당한 인식을 얻는 기능이 바로 인간의 이성 능력이다. 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원하고 나쁜 것이라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곧 의지 능력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성 능력은 기본적으로 옳음과 그름, 다시 말해 시비是非를 판단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에 비해 의지력은 선한 것을 하려하고 악한 것을 피하려는 실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리치가 윤리적 의지,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인간 영혼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이성 능력 아래 놓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그에 따를 때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옳은 것이라고 사유한 경우에 한해서 그 옳은 대상을 좋아하려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마음의 호오好惡 기능을 리치는 바로 의지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가 말한 의지력은 선천적인 충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경우처럼 늘 이성의 추론 과정에 의존해 있다. 이렇게 리치에게 있어서는 이성 능력이 의지력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이, 그의 윤리학을 곧 주지주의적인 성격의 윤리학으로 규정짓게 한다.¹⁶⁾

또한 리치는 『천주실의』에서 유교 윤리의 변용과 기독교 윤리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유교 윤리의 핵심 주제인 인간의 도덕적 자기완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유교의 정통이론인 성선설과 연관하여 그것을 더욱더 기독교적으로 변용하여 발전시키는 논지 즉 양선론과 습성론을 펴나간다. 또한 기독교적인 仁을 통한 자아의 완성을 추구한다.

조선의 지식인들 가운데 『천주실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철학자는 아마도 다산茶山 정약용일 것이다. 그는 ‘권형權衡’이라는 표현으로 ‘자유의지’를 설명한다. 권형이란 글자 그대로 저울과 저울추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울은 한쪽에서 기준이 되는 저울추를 달고 다른 쪽에 이에 준하는 물건을 실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정약용은 엄정하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저울의 이미지를 통하여, 선과 악 사이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역시 권형이다. 권형은 비록 악을 향하게끔 추동할 수도 있지만, 우선 선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이 선으로 가는 길인지도 이

www.kci.go.kr

16) 백민정, 『정약용의 철학』, 이학사, 2007. 71~72쪽.

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치의 견해에 따라 다산은 인간에게는 상제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선택 능력, 즉 ‘자주지권’ 즉 ‘자유 의지’가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 못지않게 다른 한편으로 상제가 인간에게 부여한 성의 선천적인 윤리적 요구를 중시했다.¹⁷⁾

III. 인간 중심 윤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윤리로

17·18세기 당시 조선 지배층의 윤리는 성리학性理學에 그 견고한 뿌리를 두고 있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윤리규범을 마음속에서 찾았다. 도덕은 그 자체가 토대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들에게 신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나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은 도덕 판단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타고난 도덕적 심성을 느끼는 것이 우선된다. 인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깨끗한 마음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인간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다시 말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도덕이란 이미 정해져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전제로서, 이것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조선의 지식인들은 만물이 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조선사회에 새로운 윤리사상의 씨가 뿌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영혼삼품설靈魂三品說에 기초하여 도덕의 근거로서의 상제上帝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한쪽에서는 몰립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엇몰립으로 그 반응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17·18세기 조선의 지

17) 오지석, 앞의 글, 72~73쪽.

식인들에게 윤리는 진리를 가늠하는 기준이었다. 그들은 논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진술도 그것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울여야 할 주의를 빚나가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회 전교사들이 전하는 지식의 ‘존재’와 조선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행동의 ‘당위’를 주장하는 것의 차이는 18세기 조선에서 일어난 유교와 천주교의 갈등의 근본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이 전래된 이후 우리 사회 일부 계층에 새로운 윤리사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¹⁸⁾ 새로운 윤리사상을 자리 잡을 수 있게 영향을 준 서학서들 가운데 『칠극』을 살펴보자.

『칠극』은 예수회 전교사 뻘또하Didace De Pantoja(1571~1618, 龐迪我 字-順陽)가 1614년 북경에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칠죄종七罪宗을 극복하여 극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다. 즉, 칠죄종을 극복할 수 있는 칠추덕七樞德을 제시하고 있다.¹⁹⁾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13세기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뻘또하의 『칠극』은 17세기 신유학자들을 위해 중국어로 서술되어 있다. 『신학대전』에 비하여 『칠극』은 자유롭고 비공식인 문체를 사용했으며, “극기”라는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뻘또하는 서구의 스토아 철학이나 기독교 윤리론을 유가의 용어로 구사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서와 성인전, 그리스-로마의 철학 및 대중적 이야기들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다. 그는 신유학의 윤리관에서 기본이 되는

18) 앞의 글, 62~63쪽.

19) “칠죄종이란 교만, 질투, 인색, 분노, 탐욕, 음란, 게으름 등으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사악이라는 뜻이다. 칠죄종이나 칠추덕과 같은 개념은 사막의 수도자들이 덕과 사악을 구분하는 데서 유래했다. 영육간의 내적투쟁을 기초로 한 이 사상은 회랍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고, 수도원에만 국한하던 이런 개념이 그레고리오 1세 S. Gregorius I (재임 590~604) 교황 때에 일반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 제2권에서 윤리 부분을 취급할 때 칠죄종과 칠추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아퀴나스의 분류에 나오는 칠추덕은 신중, 정의, 자비, 강건, 절제, 순결, 온유이다.(뻘또하는 칠추덕을 겸손, 인애, 관대, 인내, 절제, 정절, 근면이라고 소개한다.)” 김승혜, 앞의 글, 177쪽.

범주들을 수용하여 기독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등과 같은 기독교 고유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체적 삶 안에서 사악함을 극복하고 덕을 닦는 법을 먼저 설명하고자 했다. 『천주실의』가 유교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을 밝혀 준 책이라면, 『칠극』은 기독교적 수양관과 인간관을 제시해 준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 윤리관을 소개했다. 당시의 유가에서 강조하던 효제 孝悌나 충신忠信과 같은 윤리관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윤리관이었지만, 『칠극』에서는 그 윤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 내부에 적용되는 윤리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칠극』에 대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반응을 보면 먼저 이익은 『성호 사설星湖僮說』 권11에서 『칠극』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칠극』은 우리 유교의 극기설이다”라 하여, 『칠극』에서 제시된 일곱 가지 악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공자의 ‘극기’(극기복례)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확인함으로써 서학의 윤리의식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반면에 안정복 安鼎福(1712~1791)은 이 책을 읽고 평하기를 칠극은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며, 그 안에 비록 심각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취할 바가 못된다고 했다. 이규경 李圭景(1788~?)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태서의 책에 말한 그 이치를 불교와 도교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 유교와 가장 부합된다. 그 가운데 『칠극』 등과 같은 유는 모두 자신에게 절실한 학문이다.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마라고 하는데 이는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明德이라는 것이고 지미호至美好라는 것은 『대학』에서 말하는 지선至善이다. 다만 세밀히 나누고 중간 중간에 신기한 마술 같은 말들을 섞어 놓았을 뿐이다”라고 하여 이익의

설에 동조하고 있다.²⁰⁾ 또한 신앙인으로서 윤지충尹持忠,(1759~1791)은 1791년 전주에서 신문을 당할 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며 ‘칠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표현했다.

『칠극』은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교회 초창기 때부터 언문본이 있었다. 그 뒤 여러 차례 번역 되었는데, 가톨릭의 번역 상황을 살펴 보면 인항성당에서 요한若翰 김덕민金德敏이 1614년 본을 번역해 낸 한글 필사본과 이를 요약한 것, 그리고 1996년 박완식, 김진소가 『칠극진훈』을 번역한 것이 있으며, 1998년 박유리가 1614년 본을 번역한 것이 있다. 『칠극』의 영향을 받은 프로테스탄트의 서적들을 보면, 홍정후洪正厚가 1895년 발간한 『칠득七得』²¹⁾, 1904년 길선주가 쓴 『해타론』²²⁾이 있고, 송인서가 1918년에 번역한 『칠극보감七克寶鑑』²³⁾이 있다.²⁴⁾

기독교의 전래가 유교 전통사회와 가장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켰던 것은 서양의 과학이나 초월자의 개념에 있었던 것 이라기보다는 보다 윤리 사상과 사회질서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있었던 것 같다. 기독교의 윤리사상이 조선사회와 부딪힌 것은 부자관(父子觀)과 남녀관(男女觀), 군신관

20) 원재연, 「오주 이규경의 대외관과 천주교 조선전래사 인식」, 『교회사연구』 제17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143쪽.

21) 김양선, 「한국 기독교 초기 간행물에 관하여」, 『史叢』 제12, 13합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1968, 583쪽.

“홍정후는 언더우드 입국 3년만인 1887년에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 신학반도 수료한 초기 입교인으로 그가 쓴 ‘칠득’(1895년)이란 소책자는 한국인이 쓴 첫 신학서. 오늘날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8세기 천주교의 대표적 교리서인 ‘칠극’을 염두에 둔 개신교 변증서로 추정되고 있다.”

<http://www.churchtv.us/guide/history/root/roottxt18.html> 에서 인용.

22) 길선주 목사가 평양장로교신학교 재학 중 쓴 것으로 게으름(해타)을 피하여 부지런히 신앙생활에 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 책은 1916년에 『만스성취』란 제목으로 다시 발행되었다. 한영제편, 『한국 기독교 문서운동 100년』, 서울: 기독교문사, 1987, 59쪽.

23)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고문헌목록』,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5, 40쪽.

24) 오지석, 앞의 글, 73~75쪽.

(君臣觀)과 신분관(身分觀), 이해관(利害觀)과 사생관(死生觀)이다.

유교가 부모와 군주를 위시해 인간중심적인데 반해 기독교는 부모나 임금 위에 대부모와 대군주로서 하나님(천주)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절대성과 초월성을 두는 사실이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여겨졌다.

조선후기 유학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시하며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기독교에 불교를 배척할 때 사용한 바 있는 “아버도 임금도 없는 놈”(무부무군, 無父無君)의 깃발을 들고 나온다. 이에 대해 이벽은 『천주 공경가』에서 “집안에는 어른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네 몸에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네, 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공경 으뜸일세”라는 표현으로 합유론적 접근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유교윤리 사상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었다.²⁵⁾ 한역서학서들은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가톨릭 신자들도 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지충과 권상연은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폐지하였던 일이 기독교에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사대부에게 죄를 얻을 지 언정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선택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또한 임금의 명령도 어길 수 있고 부모의 명도 어길 수 있지만 천주의 교는 극형을 당하더라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을 밝혔다. 유교윤리를 배척하는 이러한 태도는 사회구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기독교인들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신념에 따라 양반과 신분질서와 남녀유별의 규범을 무시하고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던 것은 유교적 예교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분적 사회질서에 억압당했던 서민 대중과 부녀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부여

25) 금장태, 동서교섭과 근대한국사상의 추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8, 74쪽

해 주었다. 특히 한역서학을 통한 축첩제 금지, 혼인 관계와 방법의 변화(개가허용, 자유혼인, 신자간의 혼인, 동정생활)²⁶⁾, 그리고 형제애²⁷⁾에 대한 제시와 교육은 성리학중심의 조선후기사회에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새로운 인간관과 윤리사상을 실천하게 하였다.

IV. 나오면서

윤리나 도덕이란 인간이 타인과 맺은 관계에서 느끼는 어떤 마땅함의 의식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볼 수 있는 고유한 현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所以然)이 아니라,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所當然)을 뜻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 자체로서 있음’이 아니라, ‘있어야 함’을 뜻한다.²⁸⁾ 윤리가 우선 마땅함의 의식에서 시작한다면 조선후기 기독교인들은 무엇에서 마땅함을 찾아 실천했을까라는 물음을 다시 던지게 된다.

한국사회는 마테오 리치와 뽀또하를 비롯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서학을 읽고서 서양을 만났고, 기독교를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서적들을 읽은 조선후기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낯선 기독교의 윤리를 이 땅에 소개하고 실천하였다. 그것은 때론 극기복례의 모습으로, 준주성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한국에서 시작된 기독교윤리의 첫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6) 『칠곡』 제6권 방음坊淫 정덕貞德, 혼취정의 婚娶正議편에 혼인에 관한 예수회의 입장이 설명되어 있다.

27) 『교우론』에 형제애 또는 brother에 관한 것이 잘 설명되어 있다.

28) 김상봉, 『윤리·도덕』, 우리철학사상연구소편 『우리말 철학사전』 제2권, 서울:지식산업사, 2002, 227

참고문헌

- 서학서

마테오 리치, 송영배외 역, 『천주실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뵘또하, 박유리역, 『칠극』, 일조각, 1998.

G. Aleni, 김귀성 옮김, 『17세기 조선에 소개된 서구교육 - 《서학범》 《직방의 기》』, 원미사, 2001.

- 국내문헌

김장태, 동서교섭과 근대한국사상의 추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8

김장태, 『조선후기 유교와 서학』 - 교류와 갈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상근,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에 나타난 16세기 후반 예수회 대학의 교과과정과 예수회 토미즘의 영향」, 『敎會史學』 제4권 제1호, 한국기독교회사학회, 2004.

김승혜, 「『七克』에 대한 연구」, 『교회사연구』 제9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김양선, 「한국 기독교 초기 간행물에 관하여」, 『史叢』 제12, 13합집, 고려대학교사학회, 1968.

김태길, 「한국의 전통적 도덕관념과 새 시대 조류의 조화 문제」, 『윤리문제의 이론과 사회 현실』,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줄리우스 리젠후버, 이용주 옮김, 『중세사상사』, 열린책들, 2007.

박승찬,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체계에 대한 중세의 비판적 수용 -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해서를 중심으로」, 『중세철학』 제9호, 한국중세철학회, 2003.

박종홍, 서구사상의 도입 비판과 섭취, 『아세아연구』 Vol. XII No.3 통권 제35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도날드 베이커, 김세운 역, 『조선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대립』, 일지사, 1997.

백민정, 『정약용의 철학』, 이학사, 2007.

송영배, 『동서철학의 교섭과 동서 사유 방식의 차이』, 논형, 2004.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고문헌목록』,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5.

- 오지석, 「조선후기 지식인과 서학윤리사상」, 『사색』 23집, 숭실대 철학과, 2007
- 원재연, 「오주 이규경의 대외관과 천주교 조선전래사 인식」, 『교회사연구』 제17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 이경직, 「기독교 철학에서 본 윤리학의 특성과 전망」, 『기독교사회윤리』 제8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4.
- 조요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경문사, 1988.
- 조 광, 서양과의 관계, 『한국사』 32, 1997.
- _____, 「척죄정규(滌罪正規 - 새로 세운 윤리의 기준)」, 『경향잡지』 1995. 6.
- 한영제편, 『한국 기독교 문서운동 100년』, 기독교문사, 1987.
- 히라키와 스케히로, 노영희 역, 『마테오 리치』 -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동아시아, 2002.

- 사전

우리철학사상연구소편, 『우리말 철학사전』 제2권, 지식산업사, 2002.

- 인터넷

가톨릭정보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IdNum=2317

홍정후 관련 <http://www.churchtv.us/guide/history/root/roottxt18.html>

논문투고일: 2008. 4. 30

심사개시일: 2008. 5. 29

심사완료일: 2008. 6. 10